

- 해외지역정보 -

폴란드, 공공부문의 EU가입 계획 발표

국별 조사실

□ 폴란드, 공공부문의 EU가입을 위한 계획 발표

- 폴란드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인 Grzegorz Kolodko는 2월 28일에 공공부문의 EU가입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음.
- Kolodko장관이 작성한 동 계획서는 EU가입후 1년후에 유로화 경제권에 진입하기 위하여 2006년까지 경제성장률을 6%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 이를 위해 Kolodko장관은 일부 정부출자기관을 처분하고 정부지출한도를 완화하며 세율을 낮춤으로써 낭비를 제거하고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임.
- 폴란드는 EU회원국이 된 최초 3년내(2004~6년)에 EU공동농업정책기금(Common Agriculture Policy Fund)의 분담금 310억 즐로티(80억 달러 상당)를 출자해야 함.
- 그러나 예산은 막대한 지출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고, 금년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4.8%로 전망되고 있음. 그러나 Kolodko장관은 2006년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마스트리히트 기준인 GDP대비 2.6%로 하락시킬 계획임.
 - *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율은 2001년 4.5%를 기록, 2002년에는 5.3%로 추정되고 있음
- 동 계획은 지출감소보다는 수입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. EU가입 찬반에 관한 국민투표가 금년 6월에 예정됨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잠재적 사회불안에 대비한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따

라 Kolodko장관은 만성적자의 주요 요인인 10여개의 정부기금과 정부출자기관들을 처분할 예정이고, 개인세 및 법인세를 인하하며,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으로 인해 수입을 증가시킬 계획임.

□ 경제학자, 실현 가능성에 의심

- 일부 경제학자들은 Kolodko장관이 금년 경제성장률을 3.5%로 전망하는 등 과도한 낙관론자라고 비판하고 있음. BRE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Janusz Jankowiak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EU금융부문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중앙은행의 재평가준비금의 1/3을 사용하자는 내용의 Kolodko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* 금년 경제성장률을 EIU 2.8%, IIF 2.5%로 예상하고 있음.
- 현재 폴란드 집권당의 분열조짐에 따라 동 계획은 내각과 하원에 상정하기 위해 계류중임.

책임연구원 권유철(☎3779-6652)
E-mail : uckwon@koreaexim.go.kr